최 종 욱
· 광주우치동물원 진료수의사
· lovnat@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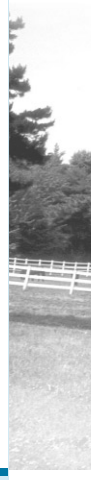
대관령 소녀 다희와 어리버리 수의사 총각

1. 왠지 마음이 끌려

맨 날 보는 하늘, 맨 날 보는 풀밭, 이 곳 대관령은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서 가끔 혼자 눈물이 나오곤 해요. 제 아버지는 이곳 목부신데 목부는 젖소의 젖을 짜주고 젖소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시는 분 들이예요.

대관령 목장은 횡계읍내 하고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읍내로 바람 쐬러 나가기조차 쉽지 않아요. 아참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최다희라는 어린이예요. 저희 학교도 바로 목장 밑에 있는 대관령 분교라 특별한 일이 있어 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 아이들끼리 읍내로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간혹 저녁때나 휴일날 한번씩 외식하러 나가는 날은 정말 축제 분위기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로 아빠 따라서 방목장에도 가보고, 좁은 목장 아파트 마당에서 친구들이나 강아지랑 장난하며 보내지요. 아직까지 여기는 어느 집에도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오락 같은 건 생각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놀고 있자니 대관령 목장 길을 큰 배낭하나 메고 낑낑대며 올라오는 젊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 아저씨는 뭐 하나 분일까? 보기엔 말끔해서 생겨서 이런 데서 일할 분 같진 않은데.' 여기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얼굴이 시커먼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이곳 목장에는 워낙 사람이 귀한지라 누군가 나타나면 곧바로 화제거리가 되지요. 우리 엄마는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총각 아저씨들의 밥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저녁 시간이 되면 총각 아저씨들이 아파트 지하 식당으로 모이게 돼요. 저도 저녁이면 항상 엄마를 곁에서 도우면서 총각 아저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하지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그 아저씨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이제 갓 지방의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대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어 무작정 이곳까지 올라 온 분이래요. 누가 오라고도 않았는데 큰 젖소들을 한번 직접 상대해 보고 싶어서 이곳 대관령 목장을 스스로 택해서 온 거래요. 참 용기가 많거나 아님 엉뚱한 아저씨 같았어요.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음날 아침부터 그 아저씨는 열심히 목부 아저씨들이랑 새벽부터 착유를 하고 원래 계시던 선배 수의사 아저씨를 졸졸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치료하는 걸 배우고 하셨어요. 오후에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자 그 아저씨가 사무실 마당 농구골대 밑에서 쉬고 계시는 걸 우연히 보았어요.

저는 옳지 한번 말이나 걸어보자고 작정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다희라고 해요. 이곳에 엄마 아빠랑 함께 살고 있죠."
"어, 그래 반갑다. 우리 저번 저녁에 잠깐 봤지. 너 참 예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응, 잠시 쉬었다가 환축 동에 가서 유방염 걸린 젖소 젖 짜려고."
"근대 왜 혼자 계세요?"
"응! 모두 낮설어서 그런지 좀처럼 내게 말을 잘 걸어 주질 않네. 외로운 건 힘들지만 며칠 있으면 금방 좋아지겠지 뭐. 그러고 보니 네가 내게 처음으로 말 걸어준 사람이 되었구나. 고맙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보도록 하자.
그런데 너 꿈이 뭐니?"

"글쎄요? 목장에 살다보니 보는 게 그런지 실은 아저씨처럼 수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물론 나중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요. 동물들을 살려 내는 걸 보면 정말 제 일처럼 신기하고 기쁘니 저도 자격은 있는 거지요?"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나도 처음이니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배우고 익혀 보기로 하자. 나도 책에서만 배웠지 실제로 젖소를 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지금은 다희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구나. 당분간은 스승님으로 모셔야겠네!"

"아이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디 부서에서 일하셔? 어제 들어보니까 목부이신 것 같던데."

"아 우리 아빠요. 혹시 환축 동에서 못 보셨어요. 바로 환축 동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세요."

"아! 그 내게 친절히 좋은 설명 많이 해 주시는 그 분, 바로 너희 아빠셨구나. 굉장히 열심이신 것 같더구나. 동물들도 진짜 잘 다루고."

"그럼요 우리 아빠가 이 목장에서 아마 제일 베테랑일 걸요. 더구나 아빠는 수정사가 되는 게 꿈이라 여기서 하나하나 배워서 나중에 읍내에서 수정소를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데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참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네. 선배님한테 불호령 떨어지겠다. 난 환축 동으로 가봐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놀래?"

"아니요. 저도 아빠도 볼 겸 아저씨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이거 스승님 앞에서 어설프게 보였다가 큰 일 나겠는걸. 그래 같이 가자. 렛츠 고"

그런데 그날따라 환축 동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 큰일이네 선배님이 유방염 걸린 젖소 3마리를 모두 손 착유를 하라고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 그래도 한번 시킨 대로 해볼까. 우선 젖꼭지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잘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짜기 시작!"

아저씨는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꽉 부여잡고 젖을 짜려고 애를 쓰고 계셨지만 젖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이! 그렇게 해서 젖이 나와요. 비켜보세요. 제가 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젖소 젖은 이렇게 윗 손가락부터 아랫 손가락으로 차례로 힘을 주면서 리듬에 맞게 짜는 거예요. 보세요. 촬 촬 잘 나오지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야, 너 참 잘하는 구나. 아 정말 그렇게 하니 젖이 잘 나오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네 뭐."

"그런데 언제 그렇게 3마리를 따 짜시겠어요. 저도 도와 줄 테니 열심히 짜세요."

"조심해라! 소한테 치인다."

"아저씨나 조심해요. 저는 아빠 따라서 많이 해본일이거든요. 부드럽게 젖을 짜주면 오히려 젖소들이 더 좋아해요. 아저씨처럼 마구 힘을 주니까, 봐요! 벌써 젖소 다리들이 움찔움찔 하잖아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 전에도 실습생들이 몇 명 왔다가 복도로 날아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응, 그래 조심할게. 이거 오늘 단단히 신세를 지는걸."

"그런데 왜 유방염 걸린 젖소는 이렇게 귀찮게 일일이 손으로 짜야 하는 거예요?"

"응, 그건 젖 주변이 염증으로 단단해져서 직접 젖에 착유기를 대면 아파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짜주어야 금방 낳는다고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젖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짜야겠네. 나 벌써 두 꼭지나 짰는데, 아저씬 뭘 해요? 아직도 하나가지고,”
“야, 좀 봐주라. 처음인데. 아무튼 오늘 이 은혜는 꼭 갚을 테니 기대해라.”

이렇게 우린 오손 도손 열심히 젖을 짜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 저 학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저씨 젖 짜는 법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허허, 젊은 수의사 선생이 어쩌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배우게 됐네 그려.”
“아무렴요. 배우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있나요 뭐. 지금은 저한테는 다 스승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최 수의사라고 불러주실래요. 저도 수의사란 말 들어보고 싶어서요.”
“나도 고민했는데, 그래 그 명칭이 맞을 것 같네. 내 그렇게 부르지. 이런 이제 젖 짜는 것 빨리 마무리 하고, 아참 그렇다고 젖꼭지에 소독약으로 침지 해주는 것 잊지 말고, 어서 직장 검사하러 가야겠네. 서 수의사가 기다리고 있어. 자네도 얼른 차비를 하게나.”

– 다음호에 계속 –